

작품 내용

제 목	이익과 불이익 그리고 옳음
내 용	“축하드립니다! 이번 달 인기 웹툰 1위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문장을 본 순간, 나는 순간의 감격스러움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몇 년 동안 밤을 지새우며 생각하고 그릴 작품이 드디어 인정받았다. 낮에는 알바를 하고 밤에는 졸음을 참으며 펜을 잡았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가족들과의 약속도,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 손목이 아파 병원에 가보니 ‘손목터널증후군’ 이라는 말을 들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한 채 작업을 이어갔다. 포기하고 싶고, 다른 일을 찾아볼까 싶었지만 “작가님, 다음 화 빨리 만들어주세요.” 라는 독자가 쓴 댓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웹툰이 유명해 질수록 행복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독자가 보낸 DM 하나가 나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작가님, 이거 작가님 작품 맞죠? 다른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게 올려놨어요.” 그 글과 함께 링크가 있었다. 링크를 눌러보니 ‘와글’이라는 사이트에서 내가 그린 웹툰이 허락도 없이 올라와 있었다. 심지어 유료 회차와 쿠키 에피소드까지 그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었다. 심지어 어느 에피소드는 나의 이름도 없이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처럼 판매되고도 있었다. 처음에는 금방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삭제를 요청하면 금방 다시 올라왔고, 다시 삭제해 달라 요청하면 10개, 20개가 더 올라왔다. 사람들은 ‘여기가 무료니 여기서 봐야지.’라며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에피소드 한 편이지만, 나에게는 나의 전부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법 사이트의 조회수는 점점 늘어났다. 내가 업로드한 정식 사이트의 조회수는 반대로 떨어지고 있었다. 조회수와 함께 수익도 같이 떨어졌다.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알바 시간을 다시 늘려야 했다. 업로드 일정은 점점 늦어졌고, 독자들은 DM으로 “왜 이렇게 휴식이 많냐.”라는 등의 말을 쏟아냈다.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불법으로 퍼진 나의 작품들을 지우기 위해 하루에 수십, 수백 번 캡처를 하며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나의 웹툰 제작 시간을 늦추게 하였고, 다음 이야기 제작이 점점 늦어졌다. 어느 날 새벽, 텅 빈 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펜을 내려놓았다. ‘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꿈을 이루고,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닌,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좋아서, 좋아서 시작했던 그림이 어느새 두려움이 되었고,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면 ‘빨리 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안 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앞섰다. ‘이번에도 훔쳐가면 어찌지.’ 결국 업로드는 중단되었다. 독자들은 아쉬워했고, 사람들은 왜 그만뒀냐며

나를 압박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절망적이고도 절망적인 나의 뒷모습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 하나 본다고 그렇게 피해를 볼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지만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한다. 그 작품 뒤엔 그 작가의 피와 땀, 그리고 인생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이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면 작가는 엄청난 경제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입는다.

그럼 선택해보자.

당신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작가의 불이익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작가의 이익을 위해 ‘옳음’을 선택하실 건가요?